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23



# Contents

※ 2026.03.26.(목) 기준(대상 기간 : 2026.03.19.~2026.03.25.)

##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 탄소중립 분야 1

-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내년 예산에 탄소중립 등 최우선 반영 방침 (2026.03.22) .....1
- 국립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2028년 울산 개관 예정 (2026.03.19) .....1
- 청주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해 올해 온실가스 25만 톤 감축 추진 (2026.03.25) ... 2
-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정비로 스마트·탄소중립 정책 반영 (2026.03.24) ..... 2
- 거창군, 거창CC에서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개최 (2026.03.25) ..... 2
- 구미시, 1302억 원 투입해 국가산단 탄소중립 전환 본격 착수 (2026.03.20) ..... 3
- 용인특례시의회,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12건 처리 (2026.03.20) .. 3
- 김해시, 지역 3개 대학과 탄소중립 리더 양성 업무협약 체결 (2026.03.20) ..... 4
- 보령시, 3년 연속 에너지 전문가 양성 교육으로 탄소중립 대응력 강화 (2026.03.22) .. 4
- 천안시의원, 공공청사 중심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 제안 (2026.03.24) ..... 5

### ■ AI 분야 5

- 이재명 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 AI 전환·인구위기 대응 본격화 (2026.03.19) ..... 5
- 평택시, AI 활용 행정혁신을 전 부서로 확대 적용 (2026.03.23) ..... 6
- 옥천군,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공모사업' 선정 (2026.03.19) ..... 6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7

▪ 탄소중립 분야 7

- 탄소중립 국회 공론화 속의 논란, 의제숙의단 8명 동반 사퇴 (2026.03.25) .....7
- 박지혜 의원, '탄소중립산업 육성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2026.03.25) .....7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시민 참여형 '내 나무 심기' 행사 개최 (2026.03.25) .....8

▪ AI 분야 8

- 만인의총관리소, 생성형 AI 활용 허용한 추모 공모전 진행 (2026.03.23) .....8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 주요 내용 9

▪ 탄소중립 분야 9

- iM뱅크, 대구 2·28공원에서 탄소중립 나무 심기 행사 개최 (2026.03.24) .....9
- 해내기보호작업장, 바스틀리코리아와 친환경 대나무 화장지 생산 협약 (2026.03.19) ...9
- 영남대 학생·유학생, 캠퍼스 나무심기로 탄소중립 실천 (2026.03.25) .....10
- 경기3030도민행동, 광역·기초자치단체별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정책 제안 (2026.03.23) 10

▪ AI 분야 11

- 소크라AI, '산타AI 토폴' 출시 효과로 월 거래액 55억 원 역대 최고 기록 (2026.03.25) · 11
- GS리테일, AI·디지털 도구 투자 확대 방침 발표 (2026.03.19) .....11
- UNIST, 노바투스아카데미아 'AI최고경영자과정' 2기 교육생 모집 (2026.03.22) .....11
- 미군의 AI 살상 알고리즘, 이란 전쟁으로 규모 확대 우려 (2026.03.21) .....12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b>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내년 예산에 탄소중립 등 최우선 반영 방침 (2026.03.2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제시. AI 대전환, 저출생,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 등 대규모 사업 중심의 구조개혁 지원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밝힌 상태.</li> <li>- 추가경정예산안의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 잠재 GDP 하회 상황과 IT·비IT 부문 간 불균형 성장을 고려하면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 표명. 초과세수를 활용한 적정 추경 규모 마련과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지원이 목적이라는 설명.</li> <li>-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민생 보호를 위한 재정 역할을 강조하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 제시. 설당부담금 도입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 표명.</li> </ul>
중앙부처	<p>☐ <b>국립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2028년 울산 개관 예정 (2026.03.1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와 울산시가 430억 원을 투입해 울산대공원 옛 유투부대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국립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추진. 수소에너지, 탄소저감 기술 등을 주제로 한 전시·체험 공간으로 2028년 개관 목표.</li> <li>- 당초 지난해 3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전산망 장애와 행정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일정이 다소 지연된 상황. 110만 울산 시민이 과학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li> <li>- 2023년 말 기준 울산의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 세 번째로 많은 수준. 정부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최대 61%) 달성을 위한 교육·소통 거점으로서의 역할 기대.</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b>청주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해 올해 온실가스 25만 톤 감축 추진 (2026.03.2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주시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온실가스 25만 8000톤 감축 계획 발표. 기존 목표보다 3.8%p 상향된 24.5%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건물·수송·폐기물·농축산·흡수원 등 5개 부문에서 67개 과제 추진.</li> <li>-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6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총 투입 예산은 약 2355억 4000만 원 규모. 기존 84개 과제 중 일몰 및 미도래 과제를 제외한 67개 과제로 정비 완료.</li> <li>- 시민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찾아가는 탄소중립 실천교육, 어린이 인재 양성 사업, 시민 참여형 실천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병행 추진 방침. 시민 인식 제고와 자발적 참여 유도가 핵심 목표.</li> </ul>
지자체	<p>□ <b>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정비로 스마트·탄소중립 정책 반영 (2026.03.2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시가 스마트 기술 접목과 도시 디자인 혁신 등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정비 착수. 스마트도시와 탄소중립 정책을 지구단위계획 기준에 반영하고 건축 기준 완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핵심 목적.</li> <li>- 인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00년 25개에서 올해 369개로 증가하였으며, 지정 면적 215.96km<sup>2</sup>로 전체 면적의 약 20.2% 차지. 강화·옹진 제외 시 도시 면적의 약 44.5%가 지구단위계획 체계 안에서 관리되는 상황.</li> <li>-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을 고려한 건축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시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공공성과 도시 환경의 질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 인천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한 실효성 있는 계획 기준 마련 추진.</li> </ul>
	<p>□ <b>거창군, 거창CC에서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개최 (2026.03.2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창군이 군 공무원·의회·임업인 단체 및 군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창CC에서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개최. 군 직영 거창CC를 단순 레저</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공간을 넘어 도심형 탄소 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들이 왕벚나무, 산딸나무, 목수국 등 다채로운 수종을 식재하였으며, 지역 임업 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 및 거창군산림조합·한국전문임업인협회 거창군협의회의 장학기금 쾌척 등 나눔 행사도 병행.</li> <li>- 구인모 거창군수는 “군민과 함께 가꿔가는 산림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 표명. 향후에도 나무심기와 숲 가꾸기를 지속 추진해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 계획.</li> </ul>
	<p><b>□ 구미시, 1302억 원 투입해 국가산단 탄소중립 전환 본격 착수 (2026.03.2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미시가 대한민국 제1호 탄소중립 산단 대표모델로 총사업비 1302억 원(국비 500억, 지방비 500억, 민자 302억) 규모의 국책사업 추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SK이노베이션이 금오산호텔에서 입주기업·유관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li> <li>- 태양광 발전소 30MW, 에너지저장장치 59MWh, 지능형 전력망 구축이 핵심 사업.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과 에너지 생산·저장·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간 약 171억 원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약 37만 tCO<sub>2</sub>eq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대.</li> <li>- RE100, CBAM, DPP 등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에 대한 입주기업의 선제적 대응 기반 마련이 목표. 2030년까지 전국 20개 산업단지로 에너지 전환 모델 확대 계획이며, 기업 체감형 전력비 절감과 설비 도입 부담 최소화에 행정력 집중 방침.</li> </ul>
	<p><b>□ 용인특례시의회,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12건 처리 (2026.03.2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특례시의회가 제30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7건 등 총 12건의 안건 처리. 신현녀 의원 대표 발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어 예산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반영 의무화.</li> <li>- 이윤미 의원 발의 종이팩 재활용 촉진 분리배출 활성화 조례안도 가결되어 전용수거함 설치 및 다량배출시설 수거체계 구축 등 자원 순환 체계 마련. 반도체 인</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재양성 조례, 사회공헌 진흥 조례 등도 동시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윤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용인시 에너지 자립률이 2022년 기준 0.83%로 경기도 평균 5.9%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2040 에너지 자립 로드맵 수립, 공공태양광 확대 등 4대 전략 제안.</li> </ul>
	<p><b>□ 김해시, 지역 3개 대학과 탄소중립 리더 양성 업무협약 체결 (2026.03.2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해시가 김해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가야대학교, 김해대학교, 인제대학교와 '지역 청년의 글로벌 탄소중립 리더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5개 기관이 글로벌 탄소중립 리더 양성 프로그램 기획·운영 공동 추진.</li> <li>- 김해시는 우수 참여자 포상과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김해연구원은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한 참여 학생 역량 강화 지원. 3개 대학은 교내 홍보, 참여 학생 모집, 학점 인정 등 제도적 지원 약속.</li> <li>- 청년 대상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및 행사 참여 기회 제공, 전문가 멘토링·진로 상담 등 청년 참여 기반 탄소중립 활동을 협력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위기 대응의 주도적 주체로 청년 성장 기반 마련.</li> </ul>
	<p><b>□ 보령시, 3년 연속 에너지 전문가 양성 교육으로 탄소중립 대응력 강화 (2026.03.2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령시가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에너지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충남연구원 신동호 경제산업연구실장이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 진행.</li> <li>- 3년 연속 이어진 전문가 양성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정부 에너지정책 기초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 강화가 목적. 수소와 해상풍력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을 지역 성장의 핵심 축으로 설정.</li> <li>- 김동일 시장은 "에너지 정책은 곧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공직자 전문성 제고와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의 능동적 대응 의지 표명.</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b>천안시의원, 공공청사 중심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 제안 (2026.03.2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염소영 천안시의원이 제287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과 시민 체험 기반 확대의 필요성 강조. 탄소중립이 시민에게 여전히 어렵고 먼 이야기로 인식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제기.</li> <li>- 서울시청 옥상정원·벽면녹화, 노원구 에코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천안시의 탄소중립 직접 체험 기반 부족 지적. 신규 공공청사에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에너지자립 기준 강화, 옥상정원·벽면녹화 등 녹지 공간 확대 제안.</li> <li>-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 공간을 활용한 에코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청소년 참여 확대 제안. “공공청사가 먼저 변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때 비로소 탄소중립은 일상이 될 것“이라는 강조로 발언 마무리.</li> </ul>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b>중앙부처</b></p>	<p>□ <b>이재명 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 AI 전환·인구위기 대응 본격화 (2026.03.1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재명 정부의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본격 출범하여 비상계엄 사태로 약 15개월간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 청와대에서 첫 본위원회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를 첫 의제로 논의 재개.</li> <li>- 경사노위 내 7개 위원회 운영에 합의하였으며,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를 구성해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과 노사 협력 모델, 산업현장 활용 지원 방안 등 논의 예정. 인구구조 변화 특별위원회도 공론화 방식을 적용해 운영할 계획.</li> <li>-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복합 대전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 등에 합의. 다만 민주노총은 1999년 탈퇴 이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b>평택시, AI 활용 행정혁신을 전 부서로 확대 적용 (2026.03.2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택시가 정책 환경 변화와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행정혁신을 전 부서로 확대. 미래전략과는 공무원 출장 중 촬영 영상으로 도로 파임 등 위험요인을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최소 10억~100억 원의 예산 절감 기대.</li> <li>- 도시계획과는 AI를 활용해 시의회 이전에 따른 공간 변화 대응 전략을 분석하여 기존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던 분석을 2~3일 내 완료. 안전총괄과는 통복천 극한호우를 가정한 AI 시뮬레이션을 통해 침수 예방 및 대응 방안 분석.</li> <li>- 다음 달 「AI 혁신 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해 직원 아이디어를 행정에 반영할 계획. 정장선 시장은 “AI를 활용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신속히 도출하고 행정을 혁신하라”고 지시.</li> </ul>
	<p>□ <b>옥천군,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공모사업' 선정 (2026.03.1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천군이 교육부 주관 '2026년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공모사업' 컨소시엄에 선정되어 군민의 디지털 학습권 보장 사업 본격 추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총괄기관으로 도내 기초지자체와 협업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li> <li>- 키오스크, 태블릿 PC 등 체험용 디지털 기기를 구비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관 등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모이는 곳을 직접 방문하는 교육 방식. 국비 2천만 원과 군비 1천3백만 원을 합한 총 3천3백만 원 규모로 사업 추진.</li> <li>- 교육기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까지 직접 찾아가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누구나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는 평생학습 기반 조성이 목표.</li> </ul>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b>탄소중립 국회 공론화 속의 논란, 의제속의단 8명 동반 사퇴 (2026.03.2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에 참여했던 의제속의단 참여자 8명이 공론화위원회의 일방적인 '후기 감축형'(블록) 경로 채택에 반발해 동반 사퇴. 환경운동연합, 한국노총, 청소년기후행동, 민주노총, 녹색연합 등 8개 단체 소속.</li> <li>- 의제속의단은 지난달 워크숍에서 340명 시민대표단에 제시할 감축 경로 선택지 중 블록형 제외를 합의했으나, 공론화위가 19일 이를 뒤집고 블록형 감축 경로를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 헌법재판소의 2024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배치되는 문제 제기.</li> <li>- 사퇴자들은 “위험 소지가 있는 선택지를 시민에게 제시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 시민대표단의 공개 속의 토론은 28·29일, 4월 4·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KBS를 통해 중계될 예정.</li> </ul>
	<p>☐ <b>박지혜 의원, '탄소중립산업 육성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2026.03.2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산업 육성 특별조치법안' 대표 발의. 기후에너지 환경부 소관으로 신규 탈탄소 산업 육성과 혁신적 지원책 조기 집중 투입이 핵심.</li> <li>- 주요 내용으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s) 도입 근거 마련, 탄소중립전문기업 및 전환 기업 대상 재정·금융·조세 감면 혜택,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녹색융합클러스터 우선 지정 및 R&amp;D 예타 면제 등 포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10.69%에 불과한 현실 인식.</li> <li>- 미국 IRA, EU NZIA, 일본 GX 추진법 등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산업 육성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목적. 박 의원은 “글로벌 탄소중립 자본 경쟁에서 우리 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과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p>□ <b>안성시시설관리공단, 시민 참여형 '내 나무 심기' 행사 개최 (2026.03.2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안성체육센터가 탄소중립 실현과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시민 참여형 녹지 조성 프로그램 '내 나무 심기' 행사를 21일 성황리에 개최. 센터 내 활용도가 낮았던 유휴부지를 시민과 함께 가꾸는 녹지 공간으로 조성.</li> <li>- 사전 모집을 통해 참여한 30가족 55명이 무궁화와 라일락 등 직접 준비한 나무를 식재하고 친환경 명패를 제작·부착하는 활동 진행. 시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li> <li>- 유휴부지의 녹지 공간 전환을 통해 도심 내 탄소 흡수원 확충과 시민 환경 인식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는 사례로, ESG 경영 강화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li> </ul>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b>만인의총관리소, 생성형 AI 활용 허용한 추모 공모전 진행 (2026.03.2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인의총관리소가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만인의사를 기리는 추모 공모를 5월 29일까지 진행. 올해 가장 큰 특징은 일반부 솟품 부문에서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하여 영상 제작의 기술적 장벽을 낮추고 출력작의 질적 향상 유도.</li> <li>-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일본군 5만여 명에 맞서 항전하다 전사한 조·명 연합군과 의병, 백성 등 1만여 명의 숭고한 희생을 소재로 작품 제작. 학생부는 기존 그림과 글짓기(시) 부문으로 접수.</li> <li>-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7월 중 수상작 선정 후 만인의총역사문화관 현장 갤러리와 공모전 누리집에서 동시 전시 예정.</li> </ul>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 주요 내용

###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b>☐ iM뱅크, 대구 2·28공원에서 탄소중립 나무 심기 행사 개최 (2026.03.2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뱅크가 대구 중구 2·28기념 중앙공원에서 '나무 한 그루, 탄소중립 한 걸음' 주제로 도심 생태계 보전 및 시민 참여형 ESG 활동 전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기부금 227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li> <li>- 국가보호종 '주목'을 공원 주요 지점에 식재해 도심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팝나무·영춘화·남천·영산홍 등 총 4000주의 묘목과 꽃을 공원 곳곳에 식재하여 녹지 공간 확충.</li> <li>- 미니 화분 제작 체험과 나눔 활동, 공원 주변 환경 정비 '플로깅' 캠페인도 병행 진행. 강정훈 은행장은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 구축을 통한 ESG 경영 적극 실천 의지 표명.</li> </ul>
민간기업	<p><b>☐ 해내기보호작업장, 바스틀리코리아와 친환경 대나무 화장지 생산 협약 (2026.03.1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해내기보호작업장이 화장지 전문기업 바스틀리코리아와 대나무 화장지 '자연의 숨결' 생산 업무협약 체결. 100% 천연 대나무 원재료의 점보롤과 핸드타올 두 가지 제품 생산 착수.</li> <li>- 대나무는 소나무 대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3.8배 높아 친환경 원재료로 각광받는 소재. 화장지 생산기술 자문, 신제품 개발 협력, 판로 개척·공동 마케팅,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등도 동시 추진.</li> <li>- 장애인 자립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모델로, 현재 중증장애인 37명이 근무하는 해내기보호작업장의 생산품 질 향상과 판로 확장 기대.</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b>대학교</b></p>	<p>□ <b>영남대 학생·유학생, 캠퍼스 나무심기로 탄소중립 실천 (2026.03.2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목일을 앞두고 영남대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150여 명이 경산캠퍼스 갑제학술림에서 나무 200여 본 식재 활동 참여. 직접 흙을 고르고 묘목을 심으며 탄소중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환경보호 활동 전개.</li> <li>- 이주형 영남대 산림자원학과장은 “오늘 심는 나무가 캠퍼스를 넘어 지역의 숲을 키우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함께 가꾼 숲이 미래 세대에 더 풍요로운 환경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는 소감 전달.</li> <li>- 학생과 유학생이 함께 참여한 캠퍼스 내 나무심기 활동으로, 대학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교육의 현장 적용 사례로서 의미 보유.</li> </ul>
<p><b>해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없음</li> </ul>
<p><b>기타</b></p>	<p>□ <b>경기3030도민행동, 광역·기초자치단체별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정책 제안 (2026.03.2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3030도민행동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해야 할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과 구체적 과제 발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기 위한 도민 주도의 연대기구 활동.</li> <li>- 도지사 직속 재생에너지 전환 추진단 설치, 도민참여 햇빛공유 재생에너지 확대,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시·군 재생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등 에너지전환 실행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과제 제시.</li> <li>-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도 차원의 정책 조정과 재정 지원 역할 수행을 요구. 6·3 지방선거에서의 탄소중립·에너지전환 공약 반영을 지속 촉구할 방침.</li> </ul>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b>소크라AI, '산타AI 토폴' 출시 효과로 월 거래액 55억 원 역대 최고 기록 (2026.03.2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에듀테크 스타트업 소크라AI가 1월 거래액 55억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역대 최고 월 실적 달성.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하였으며, 일본 시장 거래액도 34% 증가한 7억 원 기록.</li> <li>- 글로벌 교육 기관 ETS와 토폴 iBT 공식 콘텐츠 라이선스 파트너십을 맺고 출시한 '산타 AI 토폴'이 실적 견인의 핵심. ETS 공식 채점 알고리즘을 활용한 무제한 첨삭 서비스와 3000개 이상의 자체 개발 문항이 강점.</li> <li>- AI 기술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한·일 B2B 기업 교육 시장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글로벌 토폴 교육 산업 주도 목표.</li> </ul>
	<p>☐ <b>GS리테일, AI·디지털 도구 투자 확대 방침 발표 (2026.03.1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서홍 GS리테일 대표가 제5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사업 계획으로 AI와 디지털 도구에 대한 투자 확대 방침 발표. 고객 경험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와 데이터 기반 실행력 강화를 올해 경영 방향으로 제시.</li> <li>- 소비 위축과 채널 간 경쟁 격화로 유통업 전반이 구조적 전환기에 놓였지만 전사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초과 달성. 실제 행동 데이터를 토대로 빠르게 실행하고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 구축 방침.</li> <li>- 상법 개정 흐름을 반영한 정관 변경안으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전자주주총회 도입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주주 경영 감시 참여 통로 확대.</li> </ul>
대학교	<p>☐ <b>UNIST, 노바투스아카데미 'AI최고경영자과정' 2기 교육생 모집 (2026.03.2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울산·부산·경남 3개 거점에서 운영하는 노바투스아카데미 'AI최고경영자과정' 2기 교육생을 4월 17일까지 모집. 5월부터 10월까지 지역별 20명 안팎을 선발하여 강의 12회, 통합 워크숍, 해외 벤치마킹 등으로 구성.</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리큘럼은 AI 핵심 개념부터 산업 인공지능, 로봇틱스, 기술 사업화, AI 기반 경영 관리, ROI 중심 AX 전략까지 포괄. 제조업 비중이 큰 동남권 산업 구조를 반영해 스마트 제조와 생산성 혁신 사례에 비중을 둔 실행 방안 중심 교육.</li> <li>- 부·울·경 통합 원우회 기반 지역 간 네트워크가 특징이며, 수료 후에도 산학 협력과 후속 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 UNIST 교수진 직접 강의와 기술·경영·인문 융합형 구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해외</b></p>	<p><b>□ 미군의 AI 살상 알고리즘, 이란 전쟁으로 규모 확대 우려 (2026.03.2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스라엘이 하마스 전쟁에서 사용한 AI 시스템 '라벤더'가 가자지구 주민 23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남성 3만 7천 명을 잠재적 암살 대상으로 분류. 정보요원들이 라벤더의 판단에 따라 공격 버튼을 누르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0초로, 오류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무시.</li> <li>- 고위 지휘관 한 명을 잡기 위해 민간인 100명의 희생을 허용하는 전략을 사용했으며, 그 결과 가자지구에서 3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어린이와 여성이 70%에 달하는 참상 발생. 이러한 '자동화된 대량 학살'이 이란 전쟁으로 확대되는 상황.</li> <li>- 미군은 프로젝트 메이븐 등 다양한 AI 시스템을 이란 전역에 사용 중. 블룸버그 전문기자는 "AI가 민간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오폭 사고가 발생한다면, AI가 전쟁을 더 쉽게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경고.</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기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없음</li> </ul>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